

새 · 로 · 운 · 시 · 작

아무도 돌보지 않아 황폐해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며, 자신의 영성이 더욱 풍요롭게 채워지고 치유되길 바랍니다.

이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정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신영철(베드로) 신부
천주교 광주대교구 보건사목 담당
한국임상사목교육협회 이사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가을날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갑자기 장부(丈夫)가 폐암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하였는데 방문하여 기도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병실에 연락하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는데 환자는 침대와 소파 빈 공간에서 부인과 함께 노란 수액과 동통조절기(pain control)가 달린 폴대에 의지하여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 신앙인이어서 영성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겉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보호자는 신앙인이어서 하느님께 많이 의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환자도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계속적인 방문을 통해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과 빠른 쾌유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들의 가족이 신앙의 힘으로 힘든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임상사목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병들어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줄까 하는 어려움을 임상사목교육은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임상사목교육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1920년대에 미국 보스톤 지역의 Anton T. Boisen 목사와 Richard C. Cabot 의사에 의해서 시작된 전문 훈련 과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후반 골롬반 소속의 사제들에 의해서 이 교육이 시작되어 성모병원 등 가톨릭병원에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2004년 1월 16일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서 임상사목교육센터가 설립되어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 평신도, 목회자, 스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많은 분들이 임상사목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성장과 이웃의 영혼을 돌보기 위한 그룹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2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최초로 한국CPE협회가 창단되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사회가 고령화 되어 감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양질의 임상사목이 올바르게 수행되기 위한 필수 요건 중에 하나는 임상사목을 수행하는 사목자의 질적 향상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목자와 그 구성원이 임상사목 교육을 받고 이를 숙지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임상사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목자와 종사자가 교육을 받아야만 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미 미국과 호주,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는 영적 지도자, 사회복지사, 정신치료 상담사, 의사, 간호사들이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교구차원에서 최초로 서울대교구에서도 임상사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11월 17일 가톨릭회관에서 임상사목교육센터 축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에 다른 여러 교구에서도 임상사목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되어 센터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가톨릭교회 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삶의 위기와 힘든 시기를 겪는 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인 돌봄과 상담을 제공하는 사목의 효과적인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목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자각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상사목교육은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 단지 가톨릭

교회 내에서 만이 아니라 병원 환자와 복지 시설의 수용자들과 직원 및 봉사자들을 비롯한 삶의 위기에 직면한 이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이 그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임상사목교육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이 세상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그룹원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참다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아 황

폐해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며, 자신의 영성이 더욱 풍요롭게 채워지고 치유되길 바랍니다.

이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정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임상사목교육자에게 다음의 노래 가사를 소개 해드립니다.

헛헛 세상 다리가 되어

Bridge over troubled water / Simon & Garfunkel

그때가 의기소침하여 지쳐 있을 때, 그때 눈에 눈물이 고일 때, 그때의 눈물을 모두 지워드리고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Oh when times get rough
세상이 험악해지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물결 위의 다리처럼 나 자신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And friend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ll lay me down

그때가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때가 거리에서 방황할 때, 밤이 몹시도 가혹하게 찾아올 때, 나는 그대를 위로하고 그대 곁에 있겠습니다.
When you're down and out When you're on the street, When evening falls so hard, I will comfort you
어둠이 찾아오고 고통이 사방에 있을 때, 험한 물결 위의 다리처럼 나 자신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I'll take your part Oh when darkness comes And pain is all ar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ll lay me down

수지 말고 노 젓어 가세요. 은빛 소녀여 계속 항해하세요. 이제 환히 빛날 그때의 시대가 왔습니다.
Sail on silver girl, sail on by Your time has come to shine
당신의 모든 꿈이 실현되는 도중이에요. 그 꿈들이 얼마나 빛나는가를 보세요. 만약 그대가 친구를 필요로 한다면
All your dreams are on their way. See how they shine Oh if you need a friend
제가 바로 뒤에서 항해해 가겠습니다.
I'm sailing right behind
험한 물결 위의 다리처럼 제가 그대의 마음을 편히 해주겠습니다.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ll ease your mind